

잠을 자던 바위 옆에 심은 느티나무

✿		✿
지정번호	천안-8-17-35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지정년도	1982	동면 행암리 271-1
관리기관	천안	36 ° 47 ' 59.42 " N
수령	462년	176 ° 21 ' 06.17 " E
수고	16m	
흉고둘레	4m	

명승 낙수암(落水巖) 바위와 인접한 보호수(천안-8-17-356) 느티나무는 개울 옆의 도로변에 자라고 있다. 낙수암은 큰 바위가 누워 있는 사이로 개울물이 폭포처럼 흐른다는 뜻이다. 바위의 서쪽면에는 ‘落水巖(낙수암)’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 효종 때의 유학자 우암 송시열의 글씨이다. 그 옆에 새겨져 있는 오언절구는 행암거사 주석영(周錫永)이 쓴 글씨이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462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6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사람 키 높이 정도에서 몇 개의 굵은 가지가 갈라졌으며, 비스듬히 자라다가 위쪽 가지를 높이 들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나무 식재와 관련이 있다. 남쪽 지역의 어느 선비가 과거시험 준비를 마치고 시험 며칠 전에 한양으로 출발하였다. 과거시험 보러 가는 길에 시냇물이 맑고 깨끗한 곳에 쉬기 좋은 너른 바위가 있었다. 선비는 바위가 좋아 그곳에서 잠을 청하였는데, 과거시험이 바로 임박하였으니 빨리 서울로 올라가서 맨 앞에 줄을 서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 선비는 비몽사몽 꿈에서 깨어나 서둘러 시험장으로 가서 시험을 치렀다. 선비는 시험을 잘 치러 과거에 급제하였다. 선비는 그 후 행암리의 뒷산을 몽각산이라 칭하고 잠을 자던 곳에 느티나무 8본을 심었는데, 그 나무 중 하나이다.

